



"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간다"

뜻: 딸의 자식(외손자)을 며느리의 자식(친손자)보다 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으로, 딸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준다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사랑 · 애정 · 차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친	손	자	는	↓	걸	리	고				
외	손	자	는	↓	업	고	↓	간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친	손	자	는	↓	걸	리	고				
외	손	자	는	↓	업	고	↓	간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ㅈㅅㅈㄴ] [ㄱㄹㄱ] [ㅇㅅㅈㄴ] [ㅇㄱ] [ㄱㄷ]

웹에서 보기

